



Merry
Christmas

2021학년도 2학기

의료인문레마스쿨
Newsletter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ontents

1. 인연과(因緣) 시작(時作)	1
만남과 시작(처음 혹은 시쓰기)	
2. 재즈의 향기	3
(어서와, 재즈는 처음이지?)	
3. 건강한 의대생활	6
4. 야생화 이야기	8
5. 플로깅-슬기로운 걷기 생활	10
6. MATT DAMON 구하기	13
7. Coffee is the new black	16
8. 기후와 날씨	21
9. 내러티브 의학 - 인간을 이야기 하다	23
10. 안방에서 세계일주	26
(I .미국의 National Park)	
11. 몸과 마음 힐링, Tea Therapy	30
12. 영화 속의 과학과 철학	32



인연(因緣)과 시작(時作) - 만남과 시작처럼 혹은 시작

담당 교수: 김성규(신장내과학)

참여 학생: 심수현, 이해석, 김규범

서론

왜 이 수업을 선택했는가? 다른 수업과 달리 시작이라는 것은 저희가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도 아니어서 지금이 아니면 평생 접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각박한 의대 생활 속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교수님과 저희가 처음 만난 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시상은 꼭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주시며, 교수님의 학창 시절과 군의관 시절 이야기를 기본으로 시상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평소 교수님과 다양한 대화를 해 볼 기회가 없었던 저희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고, 또한 평소 알기 힘들었던 동기들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있어 앞으로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수님과 만날 기회가 제한되어 자주 뵈지 못했는데, 이날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 만남 이후로 교수님뿐만 아니라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짧게나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

교수님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첫째 날에 이어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도 저번 시간에 이어 더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의사가 된 후의 마음가짐과 조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이나 이상향을 이야기하며, 시험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시선으로 바꾸어 바로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에게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이를 통해 시작에 대한 영감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



의료인문테마스쿨 뉴스레터 제출 전 학교 근처 카페에서 활동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원래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다르게 많이 만나지 못하고, 많은 시를 써 보거나 이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진 못했지만, 교수님이 쓰셨던 시에 대해 듣고 시작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의 동기나 선배와의 대화에서 벗어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시작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시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식견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즈의 향기(어서와, 재즈는 처음이지?)

담당 교수: 김숙영(안과학), 윤숙현(안과학)

참여 학생: 김도영, 김상래, 임태규

평소 재즈에 관심을 가지고 즐겨 듣는 사람이 아니라면, 재즈에 대해 잘 생각해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재즈의 역사와 연주가를 조사하고, 여러 재즈곡을 들어보면서 조금씩 재즈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즈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재즈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미국 뉴올리언스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에서 탄생해 20세기 초중반에 크게 유행한 음악으로 유럽 악기와 음악적 틀에 아프리카의 리듬과 화성,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특유의 감성이 혼합된 장르의 음악이다”라고 설명한다면, 정의는 얼추 맞겠지만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재즈를 한마디로 “자유로운 음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트롱 역시 “만일 당신이 재즈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재즈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만큼 재즈는 자유로운 음악입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정말 많은 재즈 연주가들과 다양한 연주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조사했던 모든 연주가를 모두 소개하고 싶었지만, 대표적인 유명한 연주가 2명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은 1901년 뉴올리언스 출생으로 아버지 없이 한부모 가정으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어렵사리 종고 코넷을 구하여 독학하는 것이 어린 시절 음악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년원, 댄스홀, 거리, 미시시피강의 증기선 등의 공연 이후 재즈계의 거물이 되는 사람들과 합주하면서 경험을 쌓고 주변 음악



인들에게 음악적 지식을 배우면서 음악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시카고, 뉴욕을 거치면서 유명한 트럼펫 연주가 된 그는 연예계를 넘나들면서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악인 중 1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 넷 킹 콜



전설적인 재즈 가수 넷 킹 콜(Nat King Cole)은 그 당시 흑인 차별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차트 섭렵을 밥 먹듯이 하였으며, 이름 그대로 재즈의 왕이라고 봐도 무방한 가수입니다. 재즈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의 히트곡인 LOVE, Autumn leaves 등은 대부분 사람이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곡을 많이 작곡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사망 직전인 1964년에 대한민국으로 내한 공연을 왔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었는데, 당시에

서울 시민회관에서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른 미발표 음원을 들어보니 상당한 한국어 발음으로 매우 놀라웠습니다.

또한, 시나트라, 젤리 롤 모튼 등의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하여 단순히 유명한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음악을 작곡한 아티스트의 생애와 음악적 스타일에 대해 재즈 음악의 새로운 측면을 보게 된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즈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라이브 공연이 많이 줄어들었고, 단체로 관람할 여건이 안 되어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여행하는 뮤지션 Iseul Music>에서 감상할 수 있었으며, 몇몇 라이브 공연은 다시보기도 제공하고 있어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초창기 재즈부터 90년대 재즈까지의 느낌과는 또 다른, 현대식으로 해석한 재즈를 감상할 수 있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재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교수님께서 “조사하다 보면, 지나가다 들어본 재즈 음악이 정말 많을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재즈의 변화를 따라 시대별 연주가를 조사하다 보니 80~90년대 재즈 음악이 귀에 익숙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재즈는 우리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경험해본 음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 식당, 영화 등 우리 삶 속 어디서든 재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즈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건강한 의대생활

담당 교수: 과상규(의학통계학)

참여 학생: 박지원, 송지현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환자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지식,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공감 능력, 수술 실력 등 다양한 능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들어온 의과대학에서는 엄청난 양의 공부를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때론 유급의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 저희는 카페인과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멋진 의과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었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시간에 쫓기며 힘든 시험의 연속인 날들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지쳐 가고 있는 듯합니다.

공부만 하며 힘들 수 있는 시기에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더 나아가 공부의 효율까지 높일 방안을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부만 하며 힘들 수 있는 시기에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더 나아가 공부의 효율까지 높일 방안을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건강한 의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아진 공부량의 압박에 체력의 한계를 느꼈던 저희는,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필라테스를 주 2회 정도 다니기로 계획하여 꾸준히 운동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동하고 나니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밀려오는 졸음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처럼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마인드로 학교생활에 참여하면서 동기들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쁜 시험 일정 속에서 잠깐이라도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좋겠다는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석십자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고 반짝거리는 보석을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 시험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보석을 꼼꼼하게 붙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



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이 작기도 해서, 미묘하지만 정확하고 섬세하게 붙여야만 선의 아름다움이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작품이지만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바쁜 일정 속에서 피폐해졌던 심신 또한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스트레스는 풀리지만 웬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는데, 보석십자수는 결과물을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 흐뭇했습니다. 교수님의 제안으로 결과물을 루가관 2층 로비에 전시하였는데, 친구들의 좋은 반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영화 '둔'을 감상하였는데 저희밖에 없는 조용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니 바깥세상은 잠시 잊고 영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화 '둔'은 오직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는 작품이었으며,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깊게 남아 교수님과 영화의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하며 가족의 소중함, 자연의 섭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도 풀고, 평소 학업에만 몰두하여 잘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까지 챙기고, 여러모로 저희에게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알차고 보람된 건강한 취미와 문화생활로 여유롭고 멋진 의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야생화 이야기

담당 교수: 김정규(이비인후과학)

참여 학생: 박채은, 신진철, 황지현

교수님께서 ‘물매화’라는 꽃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발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을 때쯤에만 볼 수 있는 귀한 꽃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최정산에서 물매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함께하자고 하셨습니다.

물매화는 이름만 보면 물에서 자라는 매화 같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의 습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며, 매화 모양의 꽃이 피는 풀이라는 뜻에서 ‘매화초’라고도 불립니다.



교수님만의 물매화 spot이 있다고 하여 방문한 장소는 산 깊숙한 곳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오지 않는 동안 키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별이 들지 않아 물매화의 모습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였는데, 가는 길마다 풀이 누워져 있는 모습을 보니 야생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물매화를 뒤로하고 길가에 자란 꽃들을 보며 산책하였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흔히 ‘들국화’라고 부르는 비슷한 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쑥부쟁이와 구절초가 있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쑥부쟁이



쑥부쟁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의 습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며, 꽃잎 사이가 촘촘하고 꽃잎의 끝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자주색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구절초



구절초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반그늘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구절초라는 이름은 9월 9일에 채집해 약제로 사용하면 좋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9개의 마디가 있어서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쑥부쟁이보다 꽃과 꽃잎의 크기가 크며, 틈 사이도 넓어 보통 하얀색입니다.

플로깅-슬기로운 걷기 생활

담당 교수: 김지원(류마티스내과학)

참여 학생: 고찬우, 김병권, 김보현

플로깅이란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운동으로, 스웨덴어에서 이삭줍기를 뜻하는 플로카우프(Plocka Upp)와 영어단어 조깅(Jogging)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다는 환경보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건강을 단련하는 운동의 하나로 접근한다는 개념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바쁜 일상, 코로나 시기로 인한 많은 제약, 거의 매주 치르는 시험의 압박 속에서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함께 피폐해져 가는데,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플로깅-슬기로운 걷기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의대 생활에서 잠시나마 몸과 마음에 건강과 휴식을 주고, 동시에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5번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1, 2번째 수업은 생소하였던 플로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진행된 수업에서는 실제 플로깅을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① 9월 16일 두류공원

9월 16일, 첫 번째 플로깅 장소는 학교 주변 두류공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준비해주신 목장갑과 대형집게를 들고 기숙사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두류공원은 넓고 탁 트인 자유로운 공간이라 술병이나 비닐봉지, 담배꽂초 등 쓰레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올라갈 때는 네 명이 도로 양옆을 한곳씩 맡아가며 쓰레기를 주웠고, 야외음악당에 도착해서는,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바람도 쐬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가 처음하는 플로깅이기도 하고 비교적 많은 병, 콩초들 탓에 거의 바닥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조깅’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쓰레기 찾는 것에 집중한 것 같아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난 후 주변 매점에서 산 음료를 마시며 바람을 쐬 때, 뿌듯하기도 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② 10월 30일 앞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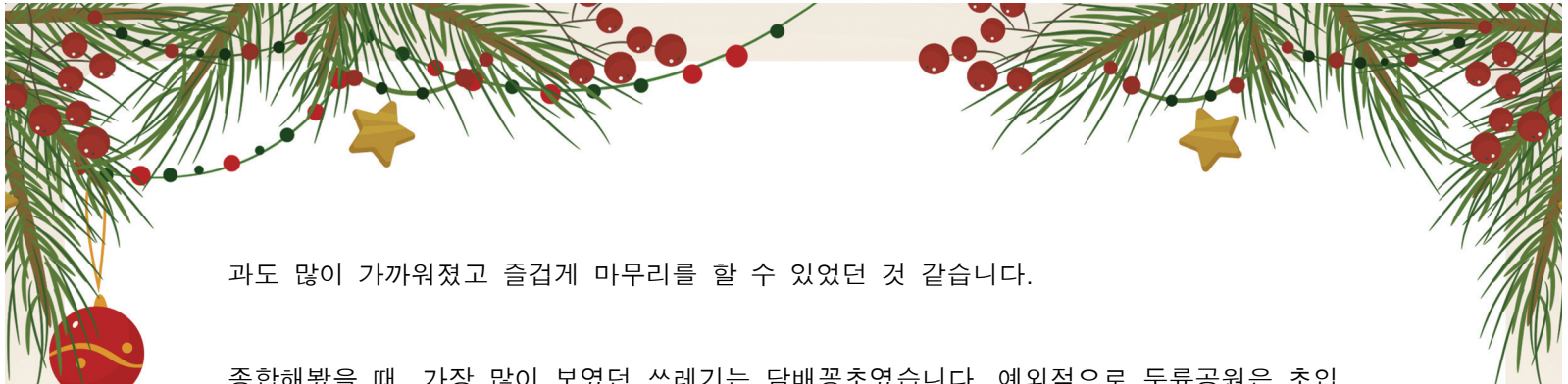
10월 30일, 앞산에서 두 번째 플로깅을 하였습니다. 카페거리가 아닌 앞산을 직접 올라본 것은 입학하고 처음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차를 타고 앞산까지 가서 등산로 입구부터 봉투와 집게를 들었습니다. 포장된 등산로임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가파른 탓에 저번과 달리 체력 소모가 좀 있었지만, 사람들이 잘 머무르지 않고 관리도 잘

되어서인지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고 이번에만말로 ‘조깅’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대생에게는 나쁘지 않은 힐링이었습니다. 20분 거리에 있는 절에서 멈추고 하산했기 때문에 길지 않은 거리였지만, 주변 풍경도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종종 쓰레기도 주우며 진짜 플로깅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③ 11월 18일 신천

11월 18일, 마지막 플로깅 장소는 신천이었습니다. 처음 가 본 신천은 딱 서울의 청계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물을 옆에 두고 잘 정리된 산책로를 걸어갔는데 양옆으로 도로와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좋았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있는 산책로인지라, 쓰레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턱에서 멈추어 돌아갔는데 이곳에 있던 수많은 붕어가 사람을 보자마자 먹이를 달라는 듯이 입을 계속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해가 지면서 주변 조명과 함께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유명한 안동갈비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교수님





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즐겁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가장 많이 보였던 쓰레기는 담배꽂초였습니다. 예외적으로 두류공원은 초입에서 술병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찾기에 집중하면 주변 경관보다 땅을 보고 걷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쓰레기를 주우러 가고 줍기 위해 몸을 숙이면서 조깅만 하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등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플로깅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물이 간단하고 산책 시간을 이용해 할 수 있는 활동이니만큼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MATT DAMON 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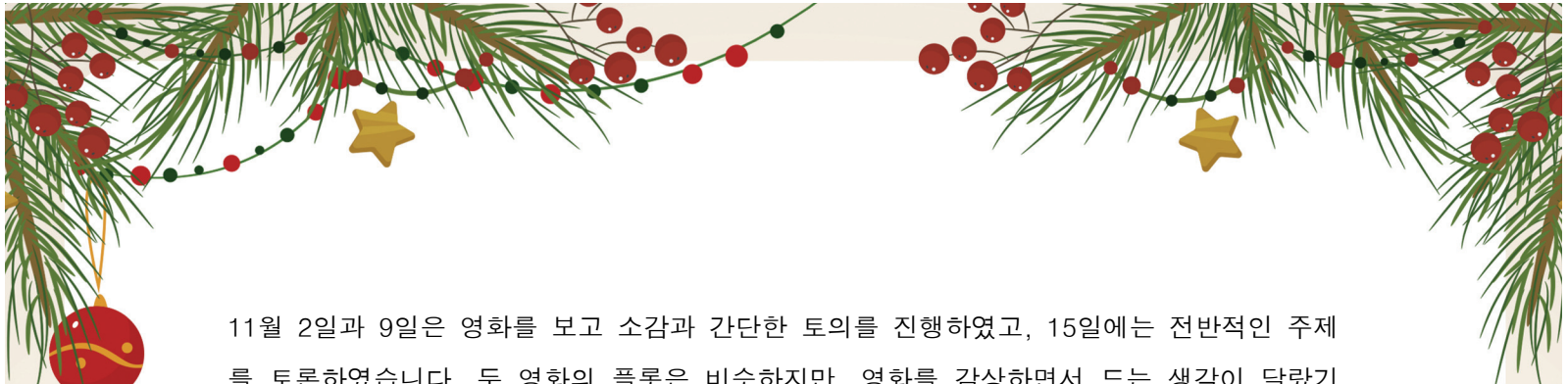
담당 교수: 김홍태(해부학)

참여 학생: 고경림, 김상범, 박성수

유명한 윤리학 분야의 사고실험인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31일, 먼저 근황에 관한 이야기와 아이스브레이킹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수님과 두 영화의 배경과 영화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주제인 ‘맷 데이먼 구하기’는 맷 데이먼이 출연한 두 작품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마션’을 시청하고 관련 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영화는 다수의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맷 데이먼 한 명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희생과 효용성, 사회적 합의의 기준, 리더십 등에 관한 주제를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일과 9일은 영화를 보고 소감과 간단한 토의를 진행하였고, 15일에는 전반적인 주제를 토론하였습니다. 두 영화의 플롯은 비슷하지만, 영화를 감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달랐기에, 먼저 두 영화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대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으며 심지어 라이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마션’의 조난자 마크 와트니는 대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한 동료였고, 대원들은 상부의 결정과는 반대로 동료를 구하러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희생하는 쪽의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두 영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두 영화의 등장인물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각각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위한 희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이후, 두 상황에서 효용성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맷 데이먼이 출연한 영화에서 맷 데이먼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총 비용이 10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0조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각 상황에서 맷 데이먼을 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달랐고, 맷 데이먼을 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손해가 달랐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결정권자의 의지와 효용성, 기회비용 등 고려할 점이 많다는 것인데, 교수님께서서는 의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험이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관한 내용에서 예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처음엔 보건정책 담당자 혹은 희귀질환 관련 연구원 등 개개인의 위치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에 있어서는 정확한 수치로 객관화하여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수치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주제는 리더십으로, 두 영화의 리더인 밀러 대위와 루이스 대령은 과연 리더로서 옳은 결정을 한 것인지, 주로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의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공통으로 리더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고,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애초에 리더의 결정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관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의 결정이 항상 합리적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역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과 충분히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택한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영화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면서 의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쯤 반드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특히 의사는 선택해야 할 일이 자주 있는데, 최선의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할 것에 관하여 토론해 보는 시간이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선택들은 급박한 순간들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에서 고민해야 할 요소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은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수업을 듣고 복습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생활에 약간의 여유를 갖고 공부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토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과 함부로 답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의사가 되어서, 또는 어느 집단의 리더가 되어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면 의료인문테마스쿨 시간에 주고받은 생각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offee is the new black

담당 교수: 노은석(마취통증의학), 정진용(마취통증의학)

참여 학생: 권세현, 손명아, 이송희

커피란, 공부를 많이 하는 저희에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커피가 좋아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지만, 커피를 통해서 저희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Americano 만들기

첫 번째 수업 때는 하리오 드리퍼를 이용하여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로스팅된 커피빈을 Baratza 분쇄기에 넣어서 원하는 분쇄도에 맞추어 분쇄합니다. 다음으로 rinsing을 해서 씻어낸 후에 뜸 들이기를 하고 원하는 추출 시간에 맞춘 다음 1차 추출과 2차 추출합니다.



커피 맛을 좌우하는 요소

두 번째 수업 때는 커피 맛을 좌우하는 5가지 요소에 원두의 질과 물의 온도, 추출 시간, 분쇄도, 물의 양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물의 온도와 분쇄도를 다르게 했을 때 커피 맛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의 온도를 80, 90, 100도로 다르게 하여 실험하고 이를 tasting 했을 때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커피 맛이 더 진하게 추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쇄도를 10, 20, 30으로 다르게 하여 진행했을 때 분쇄도가 높을수록 커피빈이 가늘게 갈려 커피 맛이 더 진하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의 온도 (왼쪽부터 80, 90, 100도)



분쇄도 (왼쪽부터 10, 20, 30)

커피 드리퍼 종류

세 번째 수업 때는 두 가지 수업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커피 드리퍼의 3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같은 커피빈을 이용해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수업이었습니다. 3가지 드리퍼의 종류에는 하리오와 칼리타, 디셈버가 있습니다. 하리오 드리퍼는 추출구가 하나이며 나선형의 리브가 드리퍼의 상단에서 추출구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칼리타 드리퍼는 3개의 추출구가 있지만, 추출구의 크기가 작고 경사가 완만하여 물이 빠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디셈버 드리퍼는 리브가 없고 커다란 하나의 추출구가 있어서 커피의 추출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드리퍼를 이용하여 커피를 추출해보고 맛을 보았을 때 추출 속도가 가장 빨랐던 디셈버 드리퍼에서 맛이 가장 연했고, 추출 속도가 가장 느렸던 칼리타 드리퍼에서 커피 맛이 가장 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리오 드리퍼>



<칼리타 드리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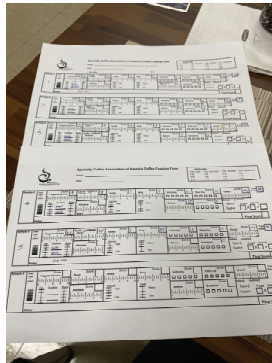
<디셈버 드리퍼>

Cupping

세 번째 수업 중에서 두 번째는 5가지 원두의 맛을 비교하고 자신이 제일 마음에 든 원두를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두의 종류는 케냐, 에티오피아(예가체프 아다도, 코타 내추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있었습니다. 평가는 단순히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9가지 기준을 두고 점수를 1~10까지 매겨서 결정하였으며, 10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fragrance/aroma | - body | - balance |
| - flavor | - aftertaste | - clean cup |
| - acidity | - uniformity | - sweetness |
| | | - overall |

각 커피의 맛이 다른 향과 겹치지 않게 계속 입을 행귀서 tasting을 했고, 자신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원두를 골랐습니다. 놀랍게도 조원 모두 케냐 원두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다양한 커피 추출법

네 번째 수업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커피 추출법들과 다른 다양한 커피 추출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로, 미스터 클레버는 기존의 드리퍼와 다르게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컵 위에 올려 두면 저절로 추출구가 열리면서 추출액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이름처럼 다른 드리퍼보다 사용법이 간단하였습니다.

둘째로, 프렌치 프레스는 커피 가루를 물에 잠기게 하여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분쇄한 원두를 프렌치 프레스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잠시 기다린 뒤 플런저를 눌러서 커피 찌꺼기를 분리하고 커피를 따라내면 됩니다. 다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입에 미세한 커피 입자가 남고, 맛과 향이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셋째로, 모카포트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주전자 모양의 커피포트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포터를 올리면 포터 안의 물이 끓을 때 생기는 증기가 물을 밀어 올리고, 올려진 물은 원두를 통과해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 조절이 다소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드브루는 일반적으로 드리퍼 안에 커피가루를 얹은 뒤, 따뜻한 물을 여러 차례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부어 커피 액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해서 빠르게 내리는 일반적 방법과 달리, 상온의 물에 장기적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뜨거운 물로 했을 때는 다양한 물질들이 한꺼번에 추출되는 반면, 콜드브루는 저온에서 녹는 물질들만 추출되기 때문에 더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스터 클레버>



<프렌치 프레스>



<모카포트>



<콜드브루>

Cappuccino 만들기

마지막 수업 때는 카푸치노를 만들 기회를 가졌습니다. 카푸치노는 우유를 넣은 커피의 일종으로, 오스트리아의 방식의 커피 음용법입니다. 카페라떼 보다 우유 거품의 비율이 높은 지라 커피 본연의 맛은 더 진하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샷을 추출한 뒤,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우유 거품 기계를 통해서 우유 거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에스프레소를 부은 컵 위에 우유 거품을 올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틀 위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 카페에서만 보던 예쁜 카푸치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문테마스쿨은 어떻게 보면 의과대학 커리큘럼이랑 전혀 상관없는 수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의사들이 경험하는 많은 것을 커피 시음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경험은 환자마다 각자 다릅니다. 같은 병일지라도 어떻게 증상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질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같은 질환이 아닌데 같은 질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표현을 잘 캐치해서 하나의 명확한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커피 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쓰다는 표현은 산미, 바디감, 향 등의 표현들로 더 명확하게 대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커피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맛보는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수업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수업을 준비해주신 노운석 교수님과 정진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와 날씨

담당 교수: 배한준(순환기내과학)

참여 학생: 안성준, 이준혁, 전병채

우리는 하루 동안 1,000mL 우유 팩 약 1만 개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수백만 명이 오염된 공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날씨와 기후도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대기오염에는 자연적인 배출원과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인위적인 배출원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이산화 황, 질소산화물 등이 있으며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미세먼지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으므로 폐에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도 위험인자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인간의 몸에 축적되게 되고 앞서 말한 미세먼지 등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제인 기후와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주제와 관련해 어릴 적 과학 시간에 많이 했던 것 중 하나로 간이기압계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키트를 준비해 주셨고, 잠깐이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굳어버린 손으로 인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간이기압계의 원리는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이기압계 큰 병 위의 풍선에 힘을 가해 당기거나 밀면, 큰 통 내부의 부피가 변하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압력이 변하면서 작은 병 위의 풍선은 힘을 준 방향으로 철사가 움직이며,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흐린 날은 저기압이 되어 당긴 것과 같은 효과가, 맑은 날은 고기압이 되어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철사가 움직이게 됩니다. 간이기압계를 만든 후 조원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교수님께서 다른 활동으로 스노우볼을 준비하셨는데 만드는 것은 어렵





지 않았습니다. 글리세린으로 반짝
이가 서로 엉겨 붙지 않게 하고,
PVA (Polyvinyl alcohol) 풀로 반짝
이가 서서히 가라앉게 하는 것만 주
의하면 됐습니다. 세 명이 함께 사
이 좋게 스노우볼을 만든 후, 감성
있는 사진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
다. 그 후 교수님과 돼지갈비를 먹
으며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조언도
해주시고,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면

서 저희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러티브 의학-인간을 이야기 하다

담당 교수: 송정운(소화기내과학)

참여 학생: 고덕형, 김미연, 최혁진

의학에서는 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 대한 이해란, 환자를 질병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을 벗어나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와의 관계적이고 심리적인 이야기를 임상 현장과 의학 연구, 교육에 적용하는 의학적 방법을 내러티브 의학(Narrative medicine)이라고 합니다.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에서는 영화 <원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다운 폴>을 감상하고 나서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간관계에 관한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며, 교수님의 환자에 대한 경험을 들어보는 과정을 내러티브 의학에 접해보았습니다.

1. 원더 (2017, 스티븐 크보스키) “누구에게나 아픈 점은 있다.”

이 영화는 매년 교수님께서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꼭 함께 보는 영화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안 본 사람을 위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화의 구성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등장인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나타내어 그 속에서 보여지는 각자의 사정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감독의 메시지가 저희에게는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다른 것뿐인 주인공 어기가 처음에는 모두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극복해내는데 영화를 보는 저희에게도 어기의 외모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느끼며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 밀리언 달러 베이비 (2004, 클린트 이스트우드) “인연은 지독하다.”

이 영화는 이번에 감상한 세 편의 영화 중에서 가장 충격을 주었으며, 사람 간의 인연은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의 손꼽히는 대배우로, 감독이자 주연배우로 출연하여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외로운 체육관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관장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서 결국 복싱을 배우게 되는 매기와의 관계가 저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로 가서는 의학을 배우고 있는 저희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충격적인 화두를 관객들에게 던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저희 세 명이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3. 다운 폴 (2004, 올리버 히르슈비겔) “무너지는 제국은 참담하고 우울하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건 다큐멘터리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동자인 나치 독일의 패망 10일 전의 모습이 표현되었으며, 비록 연기였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자살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히틀러가 모든 힘을 잃고, 역정만 부릴 줄 아는 노인과 같은 모습으로 독일군 간부들에게 취급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장면을 접하여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만나기 전 영화를 한편씩 본 후 교수님을 뵙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송정은 교수님께서도 교수님이자 학교 선배님이 시기도 하셔서 처음 뵈었을 때도 교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 더욱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문테마스쿨 주제가 ‘내러티브 : 인간을 이야기하다.’로 교수님이자 선배님으로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며, 의료인

문테마스쿨 주제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에 대해 ‘의사로서’,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잊게 될 수 있는 ‘동료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고 동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의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수반될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여유를 가지기 힘들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영화와 인간에 관해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힐링도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세계일주(I . 미국의 National Park)

담당 교수: 신흥석(비뇨의학)

참여 학생: 김영관, 김재현, 문규봉

1. “안방에서 세계일주” 진행

“안방에서 세계일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 학기 우리는 미국에 있는 여러 국립공원을 책,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고 각자 가장 가고 싶은 국립공원을 정하여 직접 여행계획을 세운 후 조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E-Book으로 “미국 국립공원을 가다”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국립공원 20곳을 직접 방문한 여정과 후기, 그리고 여행을 떠날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여행루트, 꼭 보고 와야 할 것, 팁 등을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직접 찍은 웅장한 경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후, 책 내용과 여러 매체를 참고하여 각자 가고 싶은 국립공원의 여행계획을 세우고 11월 15일에 만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며 곳곳에 간헐천이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후두(hoodoo)라는 사암기둥이 무수히 펼쳐져 있고, 토르의 망치 등 인상 깊은 절경을 가진 브라이스 캐니언, 세계 제일의 협곡이라고 평가받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신흥석 교수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일화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여행계획을 언젠가 실행에 꼭!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Sunrise Point in Bryce Canyon National Park



Grand Canyon National Park



Grand Prismatic Spring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2. 미국의 국립공원 현황

2021년 12월 현재 미국의 국립공원은 모두 63개입니다.

최초의 국립공원은 1872년 지정된 옐로스톤입니다. 이는 미국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2021년 지정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New River Gorge입니다.

여행전문 사이트 '디스커버리' 블로그는 접근성, 시설물, 볼거리, 하이킹 코스, 혼잡도 등을 비교해 방문하기 좋은 국립공원 '톱10'을 선정하였습니다. 순서는 요세미티-글레시어-올림픽-마운트레이니어-옐로스톤-그레이트스모키마운틴-자이언-노스캐스캐이즈-그랜드티턴-로키마운틴입니다.

루스벨트(재임:1901~1909)는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였던 존 뮤어(1838~1914)의 조언에 따라 연방 차원의 국립공원 관리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전국 주요 명승지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연방내무부 산하에 설치됐던 공원 관리 부서가 훗날 28대 우드로 윌슨(재임:1913~1921) 대통령 때인 1916년 확대 개편되어 지금의 연방공원관리국(NPS: US National Park Service)이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New River Gorge National Park



3. 의료인문테마스쿨 후기

책 ‘미국 국립공원을 가다’를 읽고, 기존에 경험했던 개인적 경험을 넘어 미국이라는 광활한 대륙의 엄청난 자연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작가들이 느낀 대자연과 경이로운 미국 국립공원 이야기가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여행은 행복의 종합선물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국이 끝나면 직접 여행을 하면서 뜻깊은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행에 대한 추억을 통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후에 의사가 되어 다양한 환자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행이 주는 카타르시스에 내가 겪은 어려운 상황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박하사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 힐링, Tea Therapy

담당 교수: 오희진(의학교육학)

참여 학생: 김민규, 박수진, 이송훈

10월 28일, 보이차와의 첫 만남!

저희는 티 테라피 수업을 위해 교수님과 ‘운남차정’에 첫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제는 보이차로, 보이차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두 명씩 나누어 생차와 숙차를 우려보았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차를 우리는 순서가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했지만, 찻자리는 실수했다고 하여 다그치는 불편한 자리가 아니며, 편안하고 사람을 안정되게 하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생차는 은은하면서도 여러 번 우려낼수록 맛이 지는 묘미가 있었고, 숙차는 진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우려내어 그 색을 비교하



는 시간을 가졌는데, 각각의 고유한 색, 우려내는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색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11월 18일, 평화로운 두 번째 만남



저희는 두 번째 수업을 듣기 위해 다시 ‘운남차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었던 첫 날과는 달리 다들 여유롭고 능숙하게 차를 우려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보지 못했던 자그마한 다관이 있었는데 외관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나오는 물줄기마저도 반듯해서 감탄스러웠습니다. 이날에는 보이차뿐만이 아니라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인 기문 홍차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맛은 조예가 부족하여 잘 표현하기가 어려웠지만, 책에서 접했던 홍차를 직접 우려서 마셔본 것만으로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각자 차를 우려낸 후, 찐 고구마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정말이지 평온해졌습니다.

아직 마지막 수업하진 못하였지만, 두 번의 수업만으로 차의 매력에 빠지기는 충분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자주 접할 수 있는 홍차와 같은 서양 차와는 달리 보이차와 같은 중국 차는 몹시 어렵고 낯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은은한 맛에 빠져버린 저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입학한 후부터 제대로 된 취미를 갖지도 못한 채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취미랄 것도 없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차를 마시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차지만 다양하게 우려보면 향을 맡고, 맛을 비교하는 것이 재미있는 걸 보니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 수업은 곧 끝나지만, 앞으로도 계속 차를 가까이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의 과학과 철학

담당 교수: 채송범(정형외과학)

참여 학생: 김상찬, 송준현, 임야곱(휴학)

누군가는 음악을 배우는 것이 제2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는 소설을 읽는 것이 누군가의 삶과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떨까? 영화도 소설처럼 주인공의 삶과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라는 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영화의 시대와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에서 저희는 영화를 감상한 후에 영화의 시대와 주제와 관련하여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조만의 특이한(?) 특징은 바로 세 번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같은 인원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만남은 8월 17일, 영화 'HER'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11월 11일)은 안타깝게도 한 명이 휴학하여 3명이 영화 '인터스텔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11월 17일)은 송정은 교수님 조와 함께 7명이 영화 '다운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험한 이야기를 모두 적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테니 각 영화에 대해 몇 가지 주제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각 영화에 대한 주제나 의견을 읽어보고 난 후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가 영화처럼 인간과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더욱이 인간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낸다면 인간과 AI를 구분할 수 있을까. 나아가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별함을 가질까? 사람의 3대 욕구(식욕, 수면욕, 성욕)에서 식욕과 수면욕은 개체의 생존에 필수지만, 성욕은 종족의 번식이 아닌 개체 개인의 측면에서는 생존에 필수가 아니다. 영화 'her'에서 주인공이 AI surrogate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여기서 surrogate와의 정신적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사랑은 실패하지만 반대로 육체적인 사랑이 없고 정신적인 사랑만 있는 플라토닉 러브는 가능할까?

형태가 없고 인간이 아닌 지능과 의식을 지닌 가상의 존재와 사랑에 빠지는 건 가능할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행성을 탐색하지만, 그 대가로는 지구에서 수십 년이 지나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행성을 탐색하지 않고 다른 행성으로 향하면, 그 대가로 하나의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고를 것인가요? 영화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그 외의 타인에게는 무섭도록 무관심입니다. 과연 이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화에서 현재 존재하는 인류는 구할 방법이 없지만, 미리 저장한 배아를 통해 인류라는 종은 지속할 계획이 나옵니다. 이때, 과연 저장된 배아를 위해 우주선을 만들어 행성을 탐색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게 본인과 자식이 아닌 몇백 년 뒤에 태어날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의욕적으로 힘을 쏟아부을까?



영화 ‘다운폴’은 사람들이 단순히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끝까지 남거나 전쟁에서 지게 되면 히틀러와 함께 자살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집단 광기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히틀러의 모습은 찌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번 영화 속의 히틀러는 몰락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잘 그려져 그 모습과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악명이 높고 절대적인 악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점도 사실이지만, 패배 앞에서는 두려움과 현실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결국 저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으로 생각되어 더욱더 영화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한 영화를 보더라도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소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개진하는 것과 생각을 정리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김상찬).”,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고 재밌다, 재미없다는 생각을 넘어 다양하고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여러 명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의 한 가지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연결되면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대화하는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송준현).”라는 조원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